20살이 된 현준은 지루한 일상을 보내는 와중에 눈앞에 사람들이
모여있는 것을 발견한다.

“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?”
“저 사람들 플레이팅 동아리 사람들이잖아!”
“플레이팅?”

나도 모르게 이끌린 것일까 동아리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한참을 망설인다.

“해볼까?”

해볼까라는 3글자로 시작된 현준은 플레이팅의 구성원이 되어
본격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시작한다.

“K-POP과 학생인데 최고가 되고 싶어요”

새로 들어온 의뢰. 최고가 되려면 어떡해야 할까.
최악의 과였던 K-POP 과에 하나 둘 모여 새로운 프로필과 새로운 릴스를 촬영한다.
새로 촬영한 릴스는 대성공으로, 학교 홍보지에까지 실리게 되는데..
릴스를 촬영하면서 누군가 계속 몰래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.

“나도 저런 애랑 연애해보고 싶다”

K-POP 과의 의뢰가 대성공으로 끝나고 한숨 돌리기가 무섭게
새로운 의뢰가 들어온다.

“연애하고 싶습니다!”

그렇게 만들어진 연애 프로그램.
하지만 연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는 곳은 다른 곳에 있었다.
그것을 본 출연진은 플레이팅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는데..
그 사건의 중심에는 현준이 있었다.

“하하하하할ㅎ하 우리는 망했어 망한 김에 홀딱 망해볼까??????”
“알지 알지 우린 너 믿지”
“가만히 있을 거야?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지”
“아 잠시만 나 화장실 화장실..”

그야말로 대 난장판이 되어버린 동아리에 현준은 자신 때문이라며 자괴감에 빠진다.

어떻게든 되살리고자 고군분투하는 현준은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운다.

“괜찮아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지 너의 탓이 아니야”
“ 너를 왜 믿냐니? 우리가 봐온 넌 그런 애가 아니니까. 우리도 마찬가지고”
“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계속 열심히 하자”

오히려 힘을 얻으며 겨우 동아리를 지켜낸 현준은
특별하지 않으면서도 특별한 하나를 깨닫는다.
“ 이런 것도 꿈이구나”

현준이와 친구들의 꿈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.